

### ■ '피겨요정' 김연아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순간

## 허리통증에도 환상의 '트리플, 트리플'

(연속 공중 3회전)

### 일본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에 역전승 주니어 우승이후 9개월만에 '별종의 별'

'피겨요정' 김연아(16·군포 수리고)가 성인 무대 데뷔 첫해에 여자 피겨의 '별종의 별'에 올랐다.  
김연아는 16일(한국시간) 오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 팰리스에서 펼쳐진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마지막날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9.14점을 얻어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따낸 65.06점을 합쳐 총점 184.20점으로 일본의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172.52점)를 크게 제치고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세계 주니어 피겨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빙상 100년의 역사를 새로 썼던 김연아는 9개월 만에 시니어 무대 정상에 오르면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다.  
이날 하늘색 의상을 입고 네 번째 순서로 연기에 나선 김연아는 허리 통증 때문인지 허리 부위에 테이핑을 한 채로 얼음판 위에 나서 걱정을 자아냈다.  
하지만 걱정은 이내 환희로 변했다. '종달새의 비상'의 선율에 맞춰 연기를 시

작한 김연아는 첫 번째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연속 공중 3회전)을 깨끗하게 마친 뒤 연이어 멋진 이너바우어(허리를 뒤로 젖힌 채 활주)와 더블 악셀(공중 2회전반)을 성공시키면서 큰 박수를 받았다.  
김연아는 또 레이백 스푼에 이은 트리플 러츠도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역전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마지막 더블 악셀 착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트리플 살코우에 이은 콤비네이션 스푼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심판들은 연기를 마친 김연아에게 119.14점(기술요소 점수 61.78점, 프로그램 구성요소 점수 57.36점)을 줬다.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65.06점)를 합친 총점은 184.20점으로 자신의 역대 최고점(184.54점)에 0.34점 뒤지는 좋은 기록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김연아 우승 뒤에는...

## 허리엔 테이핑... '진통제 투혼'

### 부츠 새 것과 쓰던 것 '짜싹이' 신고 출전

"진통제까지 먹고 경기에 나섰어요"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피겨여왕'으로 떠오른 김연아의 영광 뒤에는 부상을 이겨내기 위한 '진통제 투혼'이 숨어 있었다.  
김연아의 어머니 박미희씨는 17일 "허리 통증으로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한국에서 도핑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진통제를 가져와 먹으면서 경기를 치렀다"며 힘겨웠던 우승 순간을 전했다.  
박씨는 "현지에 도착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김)연아가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된

강하게 하고 경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을 앞두고 스케이트 부츠와 허리 통증의 두 가지 악재에 시달렸다.  
일본의 스케이트 장인을 찾아가 새로 맞춘 부츠는 제작기간이 오래 걸려 김연아는 연기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기존에 신던 부츠와 새 부츠를 한 짝씩 '짜싹이'로 신고 이번 대회에 나섰다.  
김연아는 또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무릎과 발목의 부상이 회복되지 않자 새로 찾은 허리 통증으로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물리치료를 집중하는 등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다.  
결국 아픈 허리를 이끌고 9시간에 걸친 장거리 비행을 통해 대회 장소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김연아는 동행한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진통제까지 복용하고 경기를 치르는 투혼을 발휘했다.  
한편 김연아는 부상 회복 후 내년 3월 일본에서 펼쳐지는 2007 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와 또 한번 자존심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김연아 세계 랭킹 9위 → 5위 '경천'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피겨요정' 김연아의 세계랭킹이 5위로 급상승했다.  
김연아는 17일 ISU 홈페이지(www.isu.org)를 통해 발표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세계 랭킹에서 3천379점으로 5위에 오르면서 자신의 시니어 역대 최고 순위(9위)를 경신했다.  
지난 2차 그랑프리에서 3위를 차지하고 4차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랭킹 9위를 차지했던 김연아는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으로 포인트를 추가해 세계랭킹에서 처음으로 5위권 이내에 포함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세계 랭킹 1위는 올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에 불참한 이리나 슬루츠카야(러시아)가 3천930점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 준우승을 차지한 아사다 마오가 3천555점으로 2위에 올랐고, 수구리 후미에는 3천477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또 랭킹 10위 내에 무려 5명의 일본 선수들이 포함돼 여자 싱글의 '일본세'를 실감케 했다.

김연아가 1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 팰리스에서 펼쳐진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화려한 금빛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점프 동작이 나오지 않아 의기소침해 있었다"며 "프리스케이팅 경기 당일 오전에야 컨디션이 그나마 회복돼 허리에 테이핑을



지인진(왼쪽)이 17일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WBC페더급 타이틀매치에서 챔피언 로페스의 얼굴을 강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인진 11개월만에 챔프 탈환

지인진(33·대원체육관)이 투혼을 발휘해 11개월만에 세계챔피언 벨트를 되찾았다.  
지인진은 17일 서울 중구 신당동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챔피언 로페스(23·멕시코)와 세계복싱경의회(WBC) 페더급 타이틀매치에서 심판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이로써 지인진은 지난 1월 일본에서 펼쳐진 3차 방어전에서 도전자 고시모토 다카시(35·일본)에게 석연찮은 판정으로 타이틀을 빼앗긴 뒤 11개월만에 챔피언 벨트를 탈환했다.  
2004년 4월 세계챔피언에 처음 오른 지인진은 한국 남자프로복싱의 유일한 세계챔피언으로서 자존심을 세웠다.  
지인진은 통산 31승(18KO)1무3패를 기록

### WBC 페더급 타이틀전

### 멕시코 로페스에 판정승

했고 챔피언 자리를 내준 신에 로페스는 19승(13KO)1무3패의 전적을 보유하게 됐다.  
지인진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련미를 앞세워 신에 로페스의 힘을 압도했다.  
지인진은 1, 2회전에 날카로운 원투 펀치 등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다 3회전에는 종료 30여초를 남겨두고 어퍼컷을 상대에 명중하는 등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4~6회에는 강력한 펀치와 빠른 발놀림으로 반격에 나선 로페스의 공격에

고전해 밀고 밀리는 난타전을 펼쳤다.  
광광하던 승부는 7회 중반부터 조금씩 지인진에게 기울었다.  
지인진은 7회 1분 30여초를 남기고 레프트 후크로 로페스의 안면을 강타하는 등 소나기 펀치로 거칠게 상대를 몰아붙였고 8~9회에도 지친 로페스에게 강펀치를 쏘으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수세에 몰린 로페스는 10회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폈지만 지인진의 날카로운 카운터 펀치와 복부 공격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인진은 11~12회에도 당황한 로페스를 거침없이 몰아붙였고 경기를 마친 뒤 승리를 확실한 듯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